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1년 11월 15일(월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			
담당 부서	자치행정과	담당자	· 자치행정팀장 조성훈 ☎ 440-2421 · 담당자 윤병호 ☎ 440-2425			
	수산과	담당자	· 수산정책팀장 송병훈 ☎ 440-4851 · 담당자 배주승·황경찬 ☎ 440-4852	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일 시						

굴업도 찾은 박남춘 시장, 주요사업 현장점검

- 해양쓰레기 수거 추진 상황, 서포리 어촌뉴딜 300사업 등 점검 -
-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 -
- 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도 방문해 시민과 소통 통한 상생의 정책 추진해 줄 것 강조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15일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를 찾아 해양쓰레기 수거 추진 상황과 서포리 어촌뉴딜 300사업을 점검 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현장방문은 어촌뉴딜300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등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과 섬 주민들을 위해 추진 중인 종합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.

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어촌·어항을 통합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 기반시설 사업이다.

인천시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사업비 1,215억 원

을 투입해 ▲(‘19년 선정된 사업) 중구 소무의항, 강화군 후포항, 웅진군 야달항·답동항·대소이작항 ▲(‘20년 선정된 사업) 서구 세어도항, 강화군 창후항·황산도항, 웅진군 장촌항, 자월2리항 ▲(‘21년 선정된 사업) 중구 삼목항, 강화군 초지항, 웅진군 서포리항 등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박남춘 시장은 “2027년 개항을 목표로한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되는 등 향후 섬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,

어촌뉴딜300 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통해 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누구나 깨끗한 인천바다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소통을 통해 섬 주민과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” 고 말했다.

이날 박남춘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현장도 함께 둘러보며, 시민과 소통을 통한 상생의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.

<붙임> 현장 방문일정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2시)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'인천시 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시 간		주 요 내 용	비 고
12:00		- 집합(연안여객터미널)	
12:00~13:50	110'	- 이동(→ 굴업도)	
13:50~14:00	10'	<div>① 어촌뉴딜 및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 보고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촌뉴딜300(서포리항, 문갑도항) 사업 보고 ○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 보고 ○ 덕적 해상낙시공원 조성사업 보고 	▪ 굴업도 선착장
14:00~14:20	20'	- 이동(굴업도 선착장 → 굴업도 해변)	▪ 도보 이동
14:20~14:30	10'	<div>②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보고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상풍력발전 추진사항 보고 	▪ 굴업도 內
14:30~15:00	30'	- 이동(굴업도 해변 → 굴업도 선착장)	▪ 도보 이동
15:00~16:50	110'	- 이동(→ 연안여객터미널)	